

SK, 최태원 회장 재추천 “승부수”

정기이사회, 3월11일 주총에 김준호 실장과 함께 이사후보 추천

SK가 3월로 임기 만료되는 최태원 SK 회장을 이사후보로 다시 추천함으로써 3월11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과의 대결이 예상된다.

SK는 2월21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관련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3월 임기 만료되는 2명의 사내이사 가운데 최태원 회장을 이사후보로 재 추천하고, 유정준 R&I부 문장(전무) 대신 법무부 정책개혁단 출신으로 2004년 영입된 김준호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추천키로 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태원 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으며, 김준호 실장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을 적극 추진해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게 됐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사회는 또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재선임 등의 안건을 다룬 43차 정기주총을 3월11일 오전 10시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이사의 보수한도를 현재 3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는 의안과 2004년 재무제표 승인안도 정기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한편, 3월 주총에서 최태원 회장 등의 이사 선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과 총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해 관철시키려는 SK측과 저지하려는 소버린측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5/02/23>